

韓國古地圖에 關한 研究

金 庚 星

《目 次》

I. 序 論	IV. 鄭尚驥가 製作한 八道圖(東國地圖)
II. 李蒼가 그린 八道圖	V. 金正浩가 校刊한 大東輿地圖
III. 鄭陟·梁誠之가 撰進한 東國地圖	VI. 結 論

I. 序 論

地圖는 單純히 空間現象의 縮少일 뿐만 아니라 事實의 記錄·分析·表現 및 空間關係에 있어서 事物의 相互關連性을 理解하는데 좋은 道具가 되는 것이다.¹⁾

또한 한 國家 政治 社會의 背景 및 文化의 發達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李朝時代의 政治 社會 文化的인 諸般 現象들이 地圖學의 發達에 어떤 影響을 주었으며 學問的인 觀點에서 地理學과의 關係 및 科學技術史의 一面을 밝히는 것은 重要한 과제라 본다.

지금까지 韓國 古地圖에 대하여 類似한 研究들이 多少 行하여 졌으나²⁾ 本稿에서는 地圖製作技術의 發達過程과 地圖學의 發達, 地圖의 活用性의 面에서 地理學과의 關連性 問題를 重點的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은 分析의 對象이 되는 地圖의 選擇에 있어서도 한 時代를 대표할 수 있는 地圖로서 實測에 依하고, 製作技術 및 地理學의 背景의 觀點에서 發達過程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擇하였다. 즉 李蒼의 「八道圖」, 鄭陟·梁誠之의 「東國地圖」, 鄭尚驥의 「東國地圖」, 金正浩의 「大東輿地圖」만을 擇하였다.

II. 李蒼의 「八道圖」

太宗 2年(1402)에 金士衡, 李茂, 李蒼 등이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³⁾라는 世界地圖를 完成하였다는 事實이 權近의 「陽村集」에 전해지고 있다. 이 世界地圖는 定宗 1年(1399) 金士衡이 登極使로 明나라에 다녀올때 가지고 온 元의 李擇民이 製作한 매우 詳備된 「聲教廣被圖」(1330년경)와 天台 僧·清濬이 그린 「歷代帝王混一疆理圖」(1328~1392)의 두 地圖를 合하여 一圖로 하였으며 遼東以東部分 및 疆域을 詳細히 하고 特히 朝鮮地圖를 增廣하고 日本을 添附하여 보다 完全한 世界地圖를 作成한 것이다. 이 世界地圖속의 朝鮮部分 地圖가 李蒼가 作成한 八道圖 自體와 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世界地圖속의 朝鮮部分이 李陟의 八道圖와 같다고 할 때 高麗朝까지의 우리나라 지도를 接할 수 있는 唯一한 地圖이며 世宗代 以前에 製作된 李朝時代最古의 地圖로서 그 意義가 크다고 본다.

「混一疆理歷代國都地圖」는 그 原本은 전해지지 않고 16C에 模寫된 寫本이 日本 奈良의 龍谷大學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다.

본래 이 地圖의 製作目的이 倭寇와 野人의 攔

1) Robinson, A.H. & Sale, R.D. (1969): Elements of Cartography p. 2.

2) 金良善(1972): "韓國古地圖研究抄 一朝鮮地圖一 梅山國學散稿"

李 燦(1972): "古韓國地圖의 歷史의 考察" 空間통원 63호

全相運(1966): "李朝初期의 地理學과 地圖"

3) 이 內容은 權近의 陽村集에 전하고 이지도의 사본은 日本京都에 있는 龍谷大學에 所藏되어 있다. 이 地圖는 縱 171cm 橫 164cm의 大幅地圖로서 絹地에 그린 彩色地圖이다.

은 侵略에 對備해서 그들의 侵入經路와 本據地를 一目瞭然하게 알아볼 수 있고 平安道 東北山地로의 移民등에 必要한, 말하자면 行政國防上の 必要에서 비롯된 것이다. 權近의 拔文에 의하면 “夫觀圖籍而 知地域之 避避, 爲治之一助”라고 하여 地域의 理解를 통한 政治에 있어서의 도움을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地域은 國內外를 包含하는 것이고 政治는 國防을 包含하는 概念이라고 볼 때 그 製作目的은 명확해진다.

이 地圖의 特徵을 살펴보면 韓國西岸과 山東 東南海岸의 距離가 너무 가까워서 黃海가 하나의 內海처럼 되어 있어 그 位置上의 착오가 심하다. 鴨綠江 河口 및 豆滿江 河口, 咸鏡道の 東北端은 歪曲이 심하다. 그러나 朝鮮全圖는 鴨綠·豆滿 兩江을 國境으로 하였고 兩江 沿岸의 重要都市들이 거의 그대로 記人되어 있으며 淸川江 以南은 오히려 東國輿地勝覽의 八道總國보다 正確하고 더 많은 島嶼가 그려져 있다. 이점은 李薈가 이 地圖作成의 底本으로 한 高麗時代의 地圖製作에서 어느정도 實測이 이루어졌을 可能性을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특색으로는 이 地圖가 山脈의 表示에 있어서 獨自의인 製作技術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즉 朝鮮을 제외한 中國 滿洲 등지에서는 高山만을 山모양으로 옮겨 놓은데 반해 朝鮮部分은 山脈을 검은 굴곡선으로 表示하고 있다. 開國初 이어서 咸鏡道の 東北端의 實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地域의 地形의 表現에 歪曲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 李薈의 八道圖에 對해서 살펴 보았는데 이 地圖가 地理學과의 관련성은 別로 크지 않고 보더라도 地圖의 正確性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한 繪畫的 地圖나 半想像的인 地圖가 아니라 어느 정도 科學的 根據를 가지고 作成된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地圖는 世宗代에 시작된 實地測量에 의한 地圖製作의 모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⁴⁾ 그리고 이 地圖가 李朝初期에 作成된 것이지만 오히려 高麗朝까지의 地圖學發達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주는 性格을 띠워 高麗朝까지의 地圖學發達의 總決算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Ⅲ. 鄭陟·梁誠之가 撰進한 東國地圖

世宗代의 天文學的 觀測成果와 차츰 王權의 政治的 安定 및 地方 野人들이 平定됨에 따라 國境이 확정되고 行政區域이 整備되게 되어 李氏朝鮮은 文化的으로 成熟段階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政治, 經濟的인 면에서 精密하고 詳細한 地誌와 地圖作成의 必要性을 느끼게 된 것은 당연하리라고 본다. 또한 世宗 14년(1432) 孟思誠(1360~1438), 權軫(1357~1435), 尹准(1380~1436), 申穡(?~1433) 등에 의한 新撰 八道地理誌는⁵⁾ 地圖製作의 資料와 함께 新地圖作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世宗 18年(1436)에 平安, 咸吉, 黃海道를 實測하여 山川形勢를 圖畫한 鄭陟의 八道圖를 보충하기 爲하여 製作된 地圖가 文宗 1年(1451) 札曹參判 鄭陟(1390~1475)의 國境地方圖인 兩界地圖이다. 傳本이 없어 仔細한 것은 알 수 없으나 平安 咸鏡道の 東北部와 그 對岸의 滿洲地方에 대한 補完 修正이 重點的으로 行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府, 州, 縣, 鎭의 行政區域이 多少間 변경되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때에 距離測定을 위해 測量器具가 考案 使用된 것으로 傳하는데 “記里鼓車”와 “步數尺”이 그것이다.

記里鼓車는 中國 晉代(3世紀)에 처음으로 제작된 일종의 거리측정용 장치가 붙은 것인데 10 里를 갈때마다 木人이 저절로 북을 쳐서 거리를 자동적으로 알리게 된 것이다.⁶⁾ 이것은 平地에서만 使用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노끈으로 만든 步數尺은 험한 山地에서도 측정할 수 있어 各道驛路의 里數를 재고 30리마다 一標를 세우거나 一石을 놓고 또는 나무를 심어서 표하게 하였다.

또한 “高麗史 地理志”를 撰修한 梁誠之(1415~1482)는 端宗 2年(1454)에 “皇極治平圖”라는 일종의 行政地圖를 完成하여 撰進하였고⁷⁾ 地圖製

4) 全相運(1966): 韓國科學技術史, p. 256.

5) 世宗實錄, 卷 55, 14年 壬子 正月條

6) 全相運(1966), 科學技術史, p. 257.

7) 端宗實錄, 卷 10, 2年 1月, 己卯條

작을 위해 畫員, 相地 또는 地官, 算士 등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梁誠之는 地圖官制를 진언하여 실시케 한 바가 있다.⁸⁾

이와 같은 背景下에 地圖製作事業이 進行되어 結實을 보게 된 것은 世祖 9년(1463)이다. 즉 鄭陟(1390~1495), 梁誠之는 그때까지 수집된 모든 資料와 踏查를 통해, 말하자면 그들이 實測 觀察한 調查資料를 모아 새롭고 정밀한 綜合圖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東國地圖이다. 東國地圖는 現存하지 않아 어떤 규모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高麗五道 兩界圖, 李薈의 八道圖, 鄭陟의 八道圖, 兩界大圖, 小圖, 梁誠之의 八道圖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 分明하다.⁹⁾ 따라서 이 地圖는 高麗 이후 世宗代까지의 모든 本國地圖의 전통과 유산을 계승한 李朝初期 科學的 地圖製作의 代表的產物이라고 보며 후에 鄭尚驥, 金正浩의 輿地圖에도 큰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본다.

다음에 이 時代에 있어서 地理學과 地圖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이때부터 地圖가 地理的 內容의 表現手段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地誌의 편찬과 동시에 地圖의 作成이 隨行된 사실을 보더라도 理解할 수 있다. 즉 梁誠之의 八道地理志는 地圖製作과 함께 始作했으나 늦게 끝났으며 地誌의 편찬을 위한 資料의 수집이 완료되었을 때는 이미 제작된 八道圖의 內容이 상당히 수정되어야 했으므로 그는 八道地理志 속에 정정된 八道州郡圖와 八道山川道, 八道各一道, 兩界圖 등을 그려 넣었다.

梁誠之의 八道地理志는 新撰八道地理志 곧 世宗實錄地理志를 實證的 토대위에서 補完하고자 한 것으로 새로운 形式을 갖춘 李朝初期 人文地理書의 代表書라 할 수 있으며 地理學을 風水地理學이라는 中世의 表現에서 地理學이라는 近代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업적을 이룩하였다고 본다.

八道地理志의 一部 資料였을 것으로 보이는 慶尙道續撰地理志에 의하면 各道의 조사항목이 27個項인데 이 중 地圖製作에 必要한 것이 16個項目이나 접하고 있다. 이것은 地誌와 地圖와의 關係가 明白히 理解되었다는 증거이며 이 둘의

補完的 關係, 즉 地誌의 理解를 돕기 爲한 地圖의 製作에 地理的 調查가 必要하다것 는을 認識한 結果라고 보여진다.

IV. 鄭尚驥가 製作한 八道圖(東國地圖)

鄭麟趾의 後孫인 鄭尚驥(1678~1752)는 지도 제작에 있어서 일종의 革命的인 方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地圖가 原形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李朝初期의 地圖에서 쉽게 發見될 수 있는 결점은 咸鏡 平安의 北東部 邊境地方의 부정확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李朝後期에 접어들어 縮尺을 넣은 地圖가 비로소 製作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鄭尚驥의 東國地圖¹⁰⁾인데 이 地圖는 第一帖에 八道總圖(百里尺表示와 京都에서 正東寧海, 正西高陽, 東南蔚山, 西北義州,



(圖 1) 鄭尚驥의 八道圖關北部分

8) 世祖實錄, 卷 3, 2年 丙子, 正月, 乙未條

9) 成宗實錄, 卷 138, 13年, 壬寅 2月, 壬子條.

10) 서울大學校 開校 25周年紀念, 韓國古地圖전시회 출품목록, 1971, pp. 17-18.

正南長興, 正北江界, 西南珍島, 東北慶興의 里數記載함) 第2帖은 京圻, 湖西(京畿, 忠清), 第3帖은 嶺南(慶尚道), 第4帖은 湖南(全羅道) 第5帖은 關西(平安道), 第6帖은 海西(黃海道), 第7帖은 關東(江原道), 第8帖은 關北(咸鏡南道), 第9帖은 關北(咸鏡北道) (左便에는 地圖作成의 經緯와 編輯上의 要旨, 百里尺의 使用法, 彩色法과 各 標識의 凡例를 說明한 拔文이 있고 9.5cm의 百里尺을 넣었다)으로 되어있다.

그가 咸鏡北道 右側 下端部에 밝힌 地圖製作 動機를 國文으로 引用하던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世上에서 行하여온 우리나라 地圖가 不知其數이나 그것을 보던 寫本이고 印本이고 간에 모두 紙面에 制約되어 製作된 까닭에 山川, 道里가 모두 맞지 아니하여 十餘里되는 近距離의 것이 數百里 떨어진 距離에 놓여 있고 域은 數百里나 되는 距離가 十餘里 밖에 되지 않게 나타나 있기도하고 그 位置를 전혀 바꾸어 놓기도 하였으니 萬一 이러한 地圖에 依하여 四方으로 돌아다니던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 마치 어둠속의 旅行者나 다름 없을 것이다. 내가 이를 매우 遺憾스러히 여겨 이地圖를 만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目的이 多分히 實用的 價値에 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鄭尚驥(1678~1752)의 스승인 星湖 李滉(1579~1624)의 學門의 世界에서 많은 影響을 받아 實學派의 地理學者로서 오랫동안 全國을 踏查하였으며 實學派中에서 李滉을 宗祖로 하는 經世致用學派가 그에 이르러 絶頂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가 凡例에 밝힌 內容을 要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즉, 距離測定에 있어 百里縮尺을 使用했고 그 起點을 서울에 두었다. 全圖와 分圖를 作成하여 分圖는 八帖으로 하였으며 分습이 서로 맞도록 하였다. 分帖圖에 있어 八數를 유지하면서 地域에 따라 大道는 二幅에, 或은 一部를 他道에 添付시키는 등 다소간 伸縮性이 있도록 하였다. 百里縮尺의 使用方法을 말한 것으로 平坦한 곳

은 百里一尺을, 山峽한 곳과 水曲迂廻處에는 1尺으로서 120~130里를 測定하였다. 圖面은 重要한 곳에 着色하되 대개 五行思想¹¹⁾에 依하여 中央은 黃色, 南은 紅色, 西는 白色, 東은 靑色, 北은 黑色, 間方은 間色으로 하였으며 山脈, 水陸大路(交通路)烽燧, 城堞, 營邑, 驛堡에 이르기 까지 모두 彩色하였다는 점 등이다.

여기서 特記할만한 事實은 地圖製作에 있어서 百里尺이라는 縮尺을 使用했다는 點이다.

이와 같은 縮尺의 使用은 鄭尚驥 以前에는 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地圖學 發達에 劃期的인 轉期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독창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論難의 여지가 있겠으나¹²⁾ 우리나라 地圖學史에 큰 意義를 주었다고 본다.

百里尺이란 百里를 1尺¹³⁾으로 하고 10里를 1寸으로 한 것인데¹⁴⁾이의 적용에 있어서 평탄지형과 山峽한 地形에서 1尺으로 되는 距離를 다르게 했다는 點은 曲面의 平面化에 따르는 地形測量의 概念을 적용시킨 것이라 본다. 또한 水陸交通路, 통신망, 山脈, 지방중심지, 行政區域의 변천, 土產物 등이 뚜렷하고 상세하게 表現되어 있어 비로소 地圖가 經濟的 文化的 現象까지도 表現하게 되어 종래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地圖 제작기술상의 革新的인 發展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V. 金正浩가 校刊한 大東輿地圖

鄭陟·梁誠之의 東國地圖는 鄭尚驥의 東國地圖에 의해 계승되었고 이들은 또 金正浩에 依해 完成단계로 發展되어, 金正浩의 靑邱圖(1834)와 大東輿地圖(1861)의 出現으로 李朝時代 地圖學은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靑邱圖는 全圖를 東西 22판, 南北 22층으로 나누었으며 方眼 하나의 실제 크기는 東西가 70리(약 28km), 南北이 100리(약 40km)로 되어 있다. 方眼 하나를 지도책 1면에 나타내고 있으며 方眼의 크기는 17.5cm×25cm로 縮尺이 약

11) 李丙燾(1960), “鄭尚驥와 東國地圖” 書誌 1號, p.14.

12) 李 燦(1972), “古韓國地圖의 歷史的 考察” 空間, 通卷63호

13) 1尺이 지도의 縮尺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길이의 단위 1尺을 의미하지 않음. 9.5cm를 백리로 하는 縮尺이므로 1/421,000의 지도가 된다.

14) 全相運(1966), 前揭書, p. 273



(圖 2) 大東輿地圖古山子 哲宗12年辛酉
刊本(筆者所藏)

1/160,000이 된다. 그 手法은 鄭尚驥의 東國地圖의 것과 비슷하여 아래위로 공백이 남아 있고 따라서 붙여보면 경계가 중복되는 곳이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靑邱圖는 凡例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鄭詰祚, 黃驥 및 尹鏞의 地圖를 기본으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친 實地踏查와 調查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鄭尚驥의 地圖에서는 불가피했던 伸縮性있는 縮尺을 完全히 正確한 縮尺으로 바로잡아서 百里尺 대신 經 70里, 緯 100里의 經緯線을 그려 넣었다는데 큰 意義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經緯線實測의 기록은 肅宗39년(1713)에 漢城의 經도와 緯도 (北京을 中心으로)를 37°39'15" N, 13°30' E로 測定한 것이 있고 正祖 15年(1791)에는 우리나라 八道의 經도와 緯도를 王命으로 實測케 하였다.¹⁵⁾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靑邱圖가 完成된 당시에 金正浩는 經線과 緯線의 知識이 있었음이 사실이나 嚴密한 意味의 經緯線은 아니라고 본다.

靑邱圖에는 圖面의 공백에 各邑의 建置沿革, 古邑, 坊面, 水, 山, 鎭堡, 城郭, 倉庫, 驛站, 烽燧, 般隻, 津渡, 橋梁, 嶺隘, 島嶼, 牧場, 戶口, 軍兵, 田賦, 錢穀, 堤堰, 程里, 疆界, 土產場市, 宮室, 公廨, 樓亭, 人物, 風谷, 貢納, 壇壝, 廟殿, 祠堂, 陵墓, 寺刹, 碑碣, 古跡 등을 기록하였고, 末尾에 (純宗戊子)년의 全國 및 郡別 戶口, 男女人口, 耕地面積, 軍丁 등과 서울에서의 里程이 表로 정리된 「軍國總目表」가 있어 靑邱圖가 Atlas의 성격을 띤 地理的 內容을 담은 地圖임을 보여준다.

金正浩는 그의 作業을 靑邱圖의 完成에 만족하지 않고, 分圖를 하나의 大圖로 맞추어 나갈 수 없다는 不便을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의 精密地圖 製作에 착수했는데 이것은 靑邱圖가 나온지 27年후인 1861년 完成된 大東輿地圖이다. 이 地圖는 (哲宗 12年 辛酉刊本) 1936年 京城帝國大學法文部에서 影印하고 奎章閣 叢書第二別圖, 大東輿地圖 索引을 만들어 널리 알려지고 있다.

大東輿地圖는 22帖으로 되어 있으며 이 地圖帖은 20cm×30cm의 크기의 片을 이어서 만들었는데 그 1片은 가로 80里(약 32km) 세로 120里(약 48km)의 地域을 包含하고 있다. 이 地圖는 李朝 最大 最高의 科學的 實測地圖로서 縮尺은 靑邱圖와 같다.

第1帖에는 처음에 刊記가 있고 그 다음에 10里(4km) 方限을 그어 經緯線을 나타냈으며 四方 10里의 대각선이 약 14里(5.6km)임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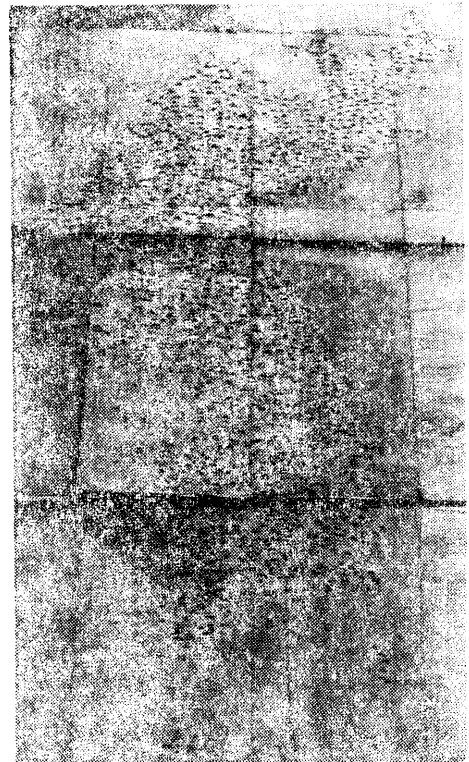


圖 3 靑邱輿地圖 全鮮總圖

15) 金正浩(1864年경), 大東地志, 卷 28, 서울大圖書館 소장, 필사본

하여 實質的인 縮尺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重要的 事實은 靑邱圖까지 당시 地圖에서는 部分的으로 使用해오던 地圖標를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도로를 나타낸 선상에 10里마다 점을 찍어 거리를 明示했다는 점이다. 또 그의 地圖標에는 없었지만 各 郡縣 등의 境界를 點線으로 구별하였다는 점이다.



圖 4 金正浩의 大東輿地圖(원자소장)

地圖의 內容은 靑邱圖와 큰 차이가 없으나, 山의 표시를 연속적으로 함으로서 山脈을 表示한 靑邱圖와는 달리 大東輿地圖에서는 山脈을 추상화하여 線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地形表示法은 中國이나 日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山脈의 稜線과 山의 모양까지도 어느정도 상상할 수 있는 소위 山岳投影圖法¹⁶⁾이라고 부를 수 있는 表現法을 사용하였다.

金正浩가 864년경에 완성한 大東地志를 보면 地理學 과 地圖와 의 關係를 알게 된다. 즉 大東

地志는 사실적이고 치밀하여 지지편찬사상 최종적 금자탑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地志와 大東輿地圖와는 同一한 關係資料로 製作된 것이며, 輿地圖와 地志가 불가분의 것으로 실제 답사라는 실증적 정신에서 제작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觀察로 大東輿地圖의 特色을 要約하던 嚴密한 經緯線은 아니지만 10里 방안의 經緯線을 사용했다는 점, 縮尺의 使用, 地圖標 使用, 도로에 거리표시, 행정구역의 境界를 點으로 표시한 점들을 들 수 있으며 地理學 發達史의 한 측면에서 볼 때 地圖가 Atlas의 性格을 띤 地理的 內容을 包含하고 있으며 特別히 人文地理學的인 內容이 다루어 졌고 地圖學的으로 본격적인 地圖의 完成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VI. 結 論

地圖의 發達は 그 社會의 政治, 社會, 文化的인 發達程度를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特別히 學問的인 觀點에서 地圖學의 發達は 地理學의 發達과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李氏朝鮮 건국 이후 實測에 依한 代表的인 몇개의 地圖는 이와 같은 發達過程의 關係를 잘 說明해 주고 있다.

위에서 밝힌 4개의 地圖에 대해서 觀察해 본 결과 <表 1>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즉 제작목적에서 보면 처음에는 軍事的, 行政的이던 것이 차츰 實用的이고 科學的 綜合的인 地圖로 發達해 왔으며 제작기술면에서도 實測기재의 등장, 天文觀測의 利用, 資料의 수집 등 종합적인 단계로 점점 발달하였다. 地圖間의 상호 關係에서도 李薈의 八道圖가 高麗朝의 지도를 종합 정리하여, 고려시대 지도학 발달상황을 繼承한 것이라고 본다면 鄭陟·梁誠之의 東國地圖는 八道圖의 影響을 받았음은 물론 李朝初期의 地圖學 發達狀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東國地圖가 鄭尚驥의 八道圖(東國地圖)에 影響을 미쳤고, 鄭尚驥의 東國地圖는 이조초기 이후 地圖學 發達을 반영해 주고 있다, 金正浩의 大東輿地圖는 물론 東國地圖를 기본도로 하였으며 李朝後期의 地圖學 發達狀況을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16)李 燦(1972), 前掲書, p.35.

李氏朝鮮에 있어서 地理學的 活動의 始作은 새 王朝의 都城을 決定하기 위한 움직임 즉 高麗朝까지의 風水地理學說을 종합정리한데서 부터 비롯되었으나 차츰 科學的 根據를 둔 近代의 意味의 地理學으로 발달되었다. 이러한 過程은 地圖學의 發達過程의 一面과 서로 깊은 關係를 갖게 되었다. 이조초기에는 별로 特別한 關係가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鄭陟, 梁誠之의 東國地圖

가 나오면서부터 地圖가 地誌의 補助的 手段으로 인식되게 되었고 차츰 人文地理學의 內容이 添加되는 소위 Atlas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金正浩에 이르러서는 地圖와 地理學과는 상호불가분의 것으로 同一의 關係자료로서 製作 되고, 地圖學은 近代의 意味의 Cartography에 별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었다.

〈表 1〉 取 扱 된 地 圖 의 內 容 比 較

地圖名 內容	李蕃의 八道圖	鄭陟·梁誠之의 東國地圖	鄭尚驥의 東國地圖	金正浩의 大東輿地圖
製作年代	太宗 2年(1402)	世祖 9年(1463)	英祖 33年(1757)경	哲宗 12年(1861)
製作目的	軍事的·行政的	行政的 政治的	實用的 科學的	科學的 綜合的
製作技術上의 特徵	實測 추정	實 測 資料使用 “記里鼓車”(1441) “步數尺”	實 測 資料使用 三角測量器(1467) 百里尺의 縮尺	實 測 資料使用 天文觀測 縮 尺 經 緯 線
地理學과의 關係	별로 無關	地法의 보조수단	人文地理學의 內容이 添 加된 Atlas의 역할(Atlas 로의 이용도는 낮다)	地誌와 불가분의 關係 地 誌와 同一資料 사실 본격 적인 Cartography
他地圖와의 關係및 其他	高麗朝까지의 地圖 總정리 계승	八道圖의 影響받고 이조 초기지도들 대표	鄭陟·梁誠之의 地圖影 響받고 李朝中期까지의 지도정리계승	鄭尚驥 東國地圖를 基本圖 로 이용, 李朝時代 地圖學 發達의 總결산

參 考 文 獻

1. 慶尚道續撰地理志, 예종 1년(1469)
2. 東國輿地勝覽, 中宗 25年(1930). 1964년, 古典刊行會, 影印本
3. 金正浩, 고종 1년, 大東地志
4. 世宗實錄, 卷 3, 55. 71, 93.
5. 端宗實錄, 卷 10
6. 成宗實錄, 卷 133, 13年 2月, 壬子條
7. 李丙燾(1971), 靑邱圖解題, 古籍國譯 叢書 47
8. 崔漢綺(1834), 靑邱圖題
9. 鄭寅普, 大東輿地圖(舊國學散稿)
10. 鄭亨愚, 金正浩(韓國의 人間像 第3卷)
11. 韓國古地圖展示會, 출품목록, (1971), 서울大學校 開校 25주년 紀念
12. 全相運(1936), “李朝初期의 地理學과 地圖”. 古文化 4輯
13. 邢基柱(1963), “韓國古地圖에 關한 研究資料”, 地理學 1號.
14. 洪以燮(1964), “金正浩의 大東輿地圖”, 思想界 10月號.
15. 金良善(1972), “韓國古地圖研究抄 — 朝鮮地圖 — 梅山國學 散稿.
16. 金良善(1972), “韓國古地圖研究抄 — 世界地圖 — 梅山國學散稿.
17. 李丙燾(1960), “鄭尚驥의 東國地圖”, 書誌, No. 1.
18. 李燦(1972), “古韓國地圖의 歷史的 考察”, 空間通卷 63號
19. 李燦(1976), “韓國의 古世界地圖”, 韓國學報, 第二輯, (第2권 1호)
20. McCune (1949), “Old Korean Maps”, Korean Review, Vol. 2.
21. Robinson, A. H., & Sale, R. D. (1969): Elements of Cartography, Now York.
22. 金正浩, 大東輿地圖, 古山子 辛酉刊本, 22册 (著者所藏)
23. 金正浩, 靑邱圖(乾坤), 民族文化推進會, 古籍國譯叢書 48.
24. 作者未詳, 靑丘輿地圖, 鄭尚驥, 東國地圖寫本. (筆者所藏)

The study of the old Korean Maps

Kyung Sung Kim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do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in the Yi Dynasty affect the geographical development and reveal the relationship with geography and a phase of the cartographic techniques from the scientific point of view. The related matters to geography were particularly emphasized on the advancement of cartographic methods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aps.

The four maps were us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Pal-do-do" (the map of 8 Provinces) by Yi Hoe (1402), "Tong Kook-Chido" (Map of Korea) by Chong Chok (1390—1475), "Pal-do-do" by Chong Sang-ki (1628-1752) and "Taidongyojido" by Kim Chong-ho (?—1864). These are the representative maps in the Yi Dynasty which show the process of progress in the cartographic methods and the geographic background of the period. Cartography was greatly improved and drawing to scale, which had been learned from Chinese translations of Western geographies, was employed. Surveys were carried out to make map as accurate as possible and atlases were compiled. Large folding maps were made which began to approach modern scientific standards, the most famous

of which was the Taidongyojido by Kim Chong-ho.

The advancement of cartography shows the degree of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progress in the nation, and particularly it has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at of geography. The above mentioned four maps explain such a situation faithfully. The attitude, replacing the dogmatic and unscientific attitude which more or less dominant during the first part of the Yi Dynasty, made itself evident in a number of ways. Administrators and rulers of the country became aware of the fact that it was impossible to govern without adequate map of the land, and this led to develop the practical, scientific and comprehensive maps. In the cartography, surveys were performed and the problem of representing landforms arose. Map had little relationship with geography in the first part of the Yi Dynasty but thenceforth it was realized that map is an essential medium to assist regional geography. The human geographical matters were enriched on the map to be an atlas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tudy of geography.